

제목: 고린도에서의 전도

본문: 행 18:1~17

시작찬송가: 91(통91), 380(통424), 546(통399)

헌금찬송가: 95(통82), 285(통209), 505(통268)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바울은 아덴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으나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하였으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디알레고마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페이도)**.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συνείχετο τῷ λόγῳ ὃς)**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디아마르튀로마이)**. 바울은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레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디다스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문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 중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강론하고, 권면하고, 밝히 증언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회개와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교육과 격려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 119: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행 12: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산치오 라파엘로 (1483~1520)
〈아덴에서 설교하는 사도바울〉(1515)



지오바니 파올로 파니니 (1691~1765)
〈페허에서 설교하는 사도바울〉(1744)

2.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하여 든든히 서게 됩니다.

시 119:129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눅 5: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행 16:9-10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3.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소로부터 바울을 지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위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지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수많은 위기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께 붙들리고, 교회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왕하 6:16-17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시 91:1-3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의 한마디: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들려, 교회에 매여 살게 하소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2. 새성전 건축과 입당을 위하여.3. C채널이 세계선교의 도구로 쓰이기를 위하여.4.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
|--|

명성교회